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서영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94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6. 23.

발 의 자 : 서영교 · 양이원영 · 김승남
한준호 · 박용진 · 이용빈
이원택 · 민홍철 · 윤관석
맹성규 · 전혜숙 · 홍영표
오영환 · 신정훈 · 윤준병
박 정 · 박성준 · 윤영덕
김경만 · 정필모 · 전해철
이용선 · 김용민 · 김남국
신동근 · 윤호중 의원
(2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혼인 중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할 수 있음. 반면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원칙적으로 모만이 할 수 있고, 미혼부의 경우에는 모의 성명, 등록기준지,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음. 이러한 현행법은 미혼모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을 경우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, 미혼부의 경우 대부분 모의 성명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.

이에 현행법 개정을 통해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의 경우에도 모 뿐만 아니라 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, 부가 모의 성명, 등록기준지, 주민등록번호를 아는 경우에도 혼인 외 자녀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46조 및 제57조).

법률 제 호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제2항 중 “모가”를 “부 또는 모가”로 한다.

제57조제2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6조(신고의무자) ① (생략)	제46조(신고의무자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<u>모가</u> 하여야 한다.	② ----- <u>부 또는 모가</u> ---
③·④ (생략)	③·④ (현행과 같음)
제57조(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) ① (생략)	제57조(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<u>모의 성명·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.</u>	<u><삭 제></u>
③ ~ ⑤ (생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